

불교미술, 알기 쉽게 배워볼까

홍익대 평생교육원, 3월 2일부터 불교미술 강좌

매주 화요일, 12주 동안 진행

고즈넉한 산사는 불교신자들에게 물론이고, 일상에 치이는 현대인들에게도 평온한 안식을 선물한다. 그런 사찰에는 불상과 탑을 비롯해 신앙을 넘어서 다양한 예술 작품들이 산재하고 있다. 불교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사상과 양식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전문 강좌가 열린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원장 이한순)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에서는 불교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강좌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을 오는 3월부터 진행한다. 강사는 불교미술 전문가인 이승희 홍익대 교수가 맡는다.

지난 2014년 2학기 신설된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불교신자 및 일반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은 "불교문화재를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그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강좌를 마련했다"고 강의의 의도를 설명했다.

강의 구성도 알차다. 가장 먼저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인도와 서역에서 부처님의 일생이 미술을

통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살펴본다.

세계에 유례가 없는 찬란한 한국의 문화유산인 고려 불화를 시작으로 사찰 내 탑, 석등 및 다리와 연못이 갖는 역할과 상징성을 배운다. 또 불교의 도상이 뜻하는 바를 한 가지씩 배워보며, 부처님의 교리를 깊이 음미해 볼 수 있다.

또한 부처님이 상주하는 사찰의 전각 등 사찰 곳곳에 구현된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사찰 공간에 대한 강의가 진행된다. 과불과 불교의 식,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른 자가 도달하는 극락정토 세계의 조형과 상징에 관한 내용은 강의에 유익함과 흥미를 더한다.

홍익대학교 문화예술평생교육원 대학로 미술이론아카데미는 오는 3월 2일 개강하며, '절에서 만나는 불교미술'은 개강 후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12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문화예술평생교육원은 "이번 수업을 통해 불교신자들은 물론, 일반인들 또한 불교미술·문화에 대해 더욱 큰 관심을 갖고, 불교미술의 아름다움과 심오함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02)3668-3745 신성민 기자



'사진계의 선승'이라고 평가받는 육명심 작가의 연작 '장승'의 '전라북도 남원 산내면 입석리 실상사(1986. 10. 11, 사진 왼쪽)'와 연작 '백민'의 '전라남도 영암(1984, 사진 오른쪽)'.



찰나에 담아낸 우리네 사람들의 삶

국립현대미술관, 육명심 작가 국내 최초 회고전

"결국 사진은 '너'와 '나'의 상대적인 만남이며 이 단계를 넘어서 서로간의 내면적 소통이 이루어졌을 때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다." <육명심(2015, 열화당)중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작가로 독실한 불자인 육명심(83)을 꼽는 데 주저하는 사람이 없다. 리얼리즘과 살롱 사진으로 양분된 1960년대 단순히 기록을 넘어 소통과 만남의 미학으로 승화된 육명심 작가의 사진은 이후 '백민' '장승' 등 '우리 것 3부작'으로 이어진다. 우리네 민중의 삶을 애잔히 포착한 그의 작품들은 마치 수행승의 치열한 구도와 같다. 그래서 지자(知者)들은 육명심 작가 '사진계의 선승'이라고 부른다.

33세의 나이인 1964년 늦깎이로 사진에 입문한 육명심 작가는 지난해 작가 활동 50년을 맞았다.

국립현대미술관(관장 직무대리 김정배)이 오는 6월 6일 과천관에서 개최하는 '육

명심' 회고전은 그의 사진 인생 50년을 조명하는 국내 최초의 전시회이다.

한국현대미술작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인 이번 전시에는 그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초기 사진 30여점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우리 것 삼부작'

- 장승 등 5개 연작 190점 선배
- 50년 작가 인생 총망라 '눈길'
- 현대시리즈 사진부문 첫 전시
- 6월 6일까지 과천관서 진행

인 '백민' '검은 모살방' '장승'과 육명심 작가를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된 '예술가의 초상' 연작까지 총 5개 연작, 190여점의 작품도 소개된다.

육명심 작가는 한국 사진사에서 예술사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하던 1960

년대에 처음 사진을 시작했다. 작가는 당시 국내 사진계의 주류를 이루던 리얼리즘 경향과는 다른 자신만의 독특한 시선을 통해 한국의 정신과 정체성을 다루는 작업을 선보여 왔다.

이는 그의 초기의 사진 작업에서부터 잘 나타난다. 작품들을 살펴보면 그가 단순히 현실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사물과 교감하는 작가의 내면적인 세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담하게 트리밍(Trimming, 사진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화면을 조정하기 위해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고 다른 부분을 확대하는 조작)되거나 화면 가운데가 텅 빈 장면들 등은 같은 시기 활동했던 작가들에게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구성이었다.

이를 두고 평단은 "단순히 리얼리티에 대한 자각을 넘어 작가가 느끼는 삶에 대한 비애까지 표현해내는 진하고 깊은 '진실'에 가까운 기록성"이라고 평가한다.

이번 전시는 그가 이르기까지 교육자로 서 주장해 온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의 기록이 아닌 사진에 찍히는 대상과의 소통"이라는 신념이 실제로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실제 육명심 작가의 연작 '백민'에 대해 박영택 경기대 교수는 "(사진에는)무당, 스님, 촌로들을 비롯해 소와 개들도 등장한다. 인간만이 아니라 풍경과 짐승들도 이 땅에서 함께 살다 죽어 갈 공동 운명체라는 이야기"라며 "그 모든 대상들과 전적으로 눈을 맞춰서 그들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찍은 사진들이며, 이는 깊은 시각적 교감이자 편안한 눈 맞춤이다. 그로 인해 사진은 그만큼 깊어지고 새로운 경지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 대해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번 회고전은 지난 50년간 한국 사진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목도해 온 작가 육명심의 작품세계를 통해 한국의 정체성, 가장 한국적인 것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02)2188-6000 신성민 기자 motp79@hyunul.com

'치유의 빛'을 머금은 만다라

만다라연구협, 20일까지 '여행자들' 전시회

만다라(曼荼羅) 우주 법계의 온갖 진리를 망라한 진수(眞髓)를 그림으로 나타낸 불화(佛畵)이다. 진리를 표현하는 만다라는 최근에는 미술 심리치료를 활용되기도 한다. 실제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만다라가 인간의 근원적인 사고체계를 열어준다는 연구 결과를 남기기도 했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 회원전 '여행자들' 전시회는 김유진 지도교수의 작품 '천 개의 태양'.

미술 심리치료를 위해 만다라를 연구하는 단체가 자신이 그린 만다라를 대중에게 선보이는 전시회를 갖는다.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오는 2월 20일까지 부산광역시청 제1전시실에서 제4회 만다라 전시회 '여행자들'을 개최한다.

동아대 평생교육원에서 만다라미술심리지도자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로 구성된 협회는 년 1회 회원전을 열어 연구한 만다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다. 실제 전시되는 40여

작품은 일반적인 만다라 도상이라기보다 미술치료를 적합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한국만다라연구협회는 "만다라 미술치료를 원상 공간에 명상을 통해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을 표현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치유하고 자아를 찾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아비달마불교에서 본 시간과 존재론

황정일 실장, 권준 저 <불교 시간론> 번역 발간

불교는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존재에 대한 철학적 반성 없이는 깊은 수행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한다. 이러한 가르침을 불교사상사에서 가장 잘 구현한 불교가 바로 아비달마불교이다.

아비달마불교가 추구한 것은 존재에 대한 이해, 즉 존재의 실상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아비달마를 대표하는 '열일체유부(유부)'는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현실, 즉 경험세계에 대한 탐구를 수행의 선행조건으로 삼았던 것이다. 유부는 '식유필경(識有必境)'에 근거해서 시간과 존재의 문제를 분석 및 정리했다.

아비달마 불교의 시간과 존재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담은 일본의 불교 철학자인 사사키 권준(1915~2010)의 <불교 시간론>이 번역·출간됐다.

번역은 황정일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이 맡았다.

책은 제1편 시간론과 제2편 존재론으로 나눠 진행된다. 시간론에서 저자는 시간에 관한 동·서양의 다양한 시간론을 제시하면서 불교적 시간론의 특질이 무엇인지를 밝힌다.

나아가 불교 시간론에 있어서도 남전과 북전 아비달마불교 시간론의 차이를 살피

고 남북전 아비달마불교의 시간론이 대승 불교에 어떻게 전승되고 이해되었는가를 또는 어떻게 비판되었는가를 논구하고 있다.

존재론에서는 제1편 시간론을 바탕으로 하여, 유부의 존재론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제2편에서는 세천이 <구사론>을 통해 유부의 사상을 비판한 것에 대해, 정통 유부사인 증현의 <순정리론>을 통해 재반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저자는 제2편 존재론을 통해, 유부의 삼세실유·법체항유가 불교의 근본사상인 연기론과 무상론에 위배되지 않음을 탁월한 식견으로 논하고 있다.

역자인 황정일 실장은 "시간과 존재란



모든 철학사상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쟁점이고 불교 역시 아비달마불교를 기점으로 하여, 대승불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논쟁을 벌여 왔다"면서 "이 책은 불교철학이나 그 핵심개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독자들에게는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92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시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6년 3월 14일까지

◆ 개강일시 : 2016년 3월 15일(화요일) 개강
매주 (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교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탐골공원 뒤편 ☎ 02)741-0495, 0496

자연의 향으로 🌿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불교양초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제품

소이(SOY) 왁스 양초
미국산 LOTUS 향초

· 로터스 양초 특징 :
① 그늘음이 거의 없습니다.
② 대두(콩)에서 추출한 순수식물성입니다.

규격 : 590x18mm
연소시간 : 60 ~ 70시간

실외 양초 공방집

일본 직수입

심산자, 란단향, 후리지아, 라일락향, 밀감향

크리스탈 연꽃 받침대
밀납양초 교체형

범당에서 초공양을 쉽게 올릴 수 있도록 연꽃 모양의 크리스탈 받침대와 밀납양초로 손쉽게 양초를 교체할 수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밀납양초는 특수 PC캡을 이용하여 화재위험을 완벽하게 방지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범당 및 야외 어디서나 안전하게 초 공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031) 766-0242 / 팩스 031) 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묘읍 봉골길 131-14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www.shcandle.com